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 데이비드 랭 | 유래현 옮김 |

격랑으로 가득한 내면 탐구의 길을 거쳐 '아무도 아닌 자신'을 일깨우는 방법을 발견한 저자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 마지막에 소개되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방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무한한 '아무도 아님'을 체험해 보시길...(편집자 주)



1970년, 17살이었을 때 내 삶은 별것도 아닌 어떤 일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내 손가락에 대한 얘기다.

나는 어떤 평범한 방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과 있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불가능해 보였다. 어떤 사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색도, 어떤 형체도, 어떤 움직임도 아닌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없음’이라는 개념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영국 가정에서 자라고 보수적인 영국학교에서 교육받아온 나로서는 이렇게 정상을 벗어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났는지 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떤 것’들이었고 나는 눈길이 닿는 곳에서 늘 무언가를 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방에서, 나는 그 위크숍 진행자이며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더글러스 하딩의 지도를 따라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그 없음nothing을 바라보고 있었다.

좀더 정확히 하면 ‘어떤 것도 아닌 것no-thing’이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없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었고, 항상 깨어있어 온 것이었고, 항상 깨어있을 것이었다. 이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깨어있었고, 죽은 후에도 깨어있을 것이라니... 이 간단한 경험 하나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 가정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버렸다. 그리고는 그 ‘어떤 것도 아닌 것no-thing’이라는, 존재의 충격적인 경험 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삶에 대한 것이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빛의 삶!

첫 번째 길 _ 시작과 끝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 시간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장방형 불빛을 보니 새벽이 가까운 것 같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서? 그것도 가정일 뿐이다. 구르며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작고 희미하게 이 방의 침묵 속에 울리고 있을 뿐이니...

침대에 누워있다? 편리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이 따뜻하고 편안한 감각 속에, 침대나 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 너머로는 어떤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닥에 놓인 시계를 찾으려고 손을 뻗어본다. 배터리가 만들어내는 빛 덕분에 나는 지금이 6시임을 안다. 가족들이 깨어나기 전까지 한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 개의 길이 교차한다. 세 개? 맞다. 세 개다. 먼저 당신의 길이다. 그것은 이 책장 너머로 당신의 과거와 미래로 갈라지는, 나에겐 미지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길이 있다. 이 페이지들 앞에 놓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선택된 파편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여행할 넓은 길이다. 그것은 당신 앞에 있는 이 책에서 뻗어나와 당신에게로,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컴퓨터 스크린에서 뻗어나와 나에게로 향해있다. ‘그렇게 긴 길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특별히 흥미롭지도 않고...’라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이 길은 대부분의 환상적인 동화보다 더한 마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 발을 들여놓으면 당신은 내내 무한을 향해 걷게 될 것이다. 이 부드러운 시골 경관을 통과하면서 당신은 삶에 대한 위협과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라는 것과, 당신이 이 멋진 집에서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끝인가? 무엇이 시작인가?

대답들은 역설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간다.

나는 말한다. “보세요. 이 맑은 하늘을!

이 아름다운 경관을!”

하지만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보겠다.

오라. 함께 가자. 문이 열려있다.



두 번째 길 _ 구름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30년 전,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내 길은 형체 없고 불분명한 곳으로 나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매일 신에게 예배하고 신의 도움을 바라며 신에게 기도했다. 하지만 열일곱 살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일어나와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펼쳐진 회색 구름을 올려다보며, 나의 모든 헌신과 갈망에도 불구하고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랐다. 나는 신에게 물었지만 신은 내게 답하지 않았다. 거기 그 침묵과 무관심 너머로 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지 않았나? 성인기로 막 접어드는 평범한 학생일 뿐. 역사 속 위인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들보다 굳이 잘 해내려는 마음은 없었다. 논쟁은 논쟁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결할 수 없고, 결론나지 않고, 마치 희망을 품은 거대한 강을 향해 흘러내려가는 수많은 개천처럼, 믿음을 향한 오래된 생각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제가 그 잘 꾸며지고 무미건조한 설교 속에 담은 믿음은 아마도 잘 해보아야 순박한 소망 정도일 뿐이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중을 위한 아편 정도 아닐까. 그 밖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다. 구름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지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마을 시장 거리의 사람들은, 겨울의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불그레한 얼굴로 일을 하러 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배달 약속을 하고, 집으로 차를 몰고 떠났다. 신은 이 마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마을 바깥,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 있는가?

나는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는 거기를 떠나 버렸다.



세 번째 길 _ 자유를 향하여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니?” 이런 질문이 내게 내심 당혹스러웠다. 여름 오후에 옥수수 밭 위를 걷고, 저 멀리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커다란 크림조각처럼 떠다니는 구름, 태양의 고요한 무한 속에서 마음

껏 춤추는 나비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그토록 제약된 상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경력을 쌓아 그것에 의해 정의내려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체성으로부터 축소되어,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것의 경계 속에 담겨서, 말하자면 동물원의 작은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큰 곰처럼 되어 자유라곤 기껏 기억을 탐닉하는 정도가 되게 될 것이다. 나는 나라고 불리는 어떤 것의 지옥 속에 영원히 갇히게 생긴 것이다.

나에게 무엇이 될 거냐고 질문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정작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며 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나?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내가 가족 비즈니스에 참여할 것인가?)

하지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느낀 것은 그들 속에 또아리를 튼, 가정(家庭)이라는 무지막지한 힘이였다. 즉, 그 속에 숨어있는 질문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 갇혀서 평생을 보낼 거니? 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직업이나 경력을 평생 서너 번 바꾼다는 사실은 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를 원하는 수감자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뿐이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원했다. 나는 최소한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도 되지 않을 자유, 간혀있지 않아 강물이나 별이나 내가 좋아하던 이야기 같은 어떤 것으로든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유. 어린이로 있을 수 있는 자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었다. 17살이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 대학에 가고 소설과 시에 빠져 그 결정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다. 그리고 내 영웅이자 길 위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잭 케루악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여 인도로 육로 여행을 감으로써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부랑이들도 보게 되었다. 나는 자유를 찾
 기 위해 여생을 공원 벤치에 앉아 싸구려 와인이나 들이키며 보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단순한 결정이 아닌 하나의 명령에 가까운 나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냈다. 그렇지 않고 그
 들의 질문을 받아들이면 오늘이든 내일이
 든 불가피하게 나를 자유로부터 멀리 떼
 어놓아 결국엔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분
 명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길 _ 나는 누구인가

열여섯 살. 나는 영국에 있는 집을 나와 집 옆으로 난 작은 길을 따
 라 들판을 향해 걷고 있다. 오래된 길이다. 양쪽 돌담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부풀어올라 꼭 임신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걷다보면 내 주의
 는 분산된다. 꼭 할아버지의 손등에 붙겨진 핏줄마냥 길바닥 위에 얽
 혀있는 커다란 나무뿌리를 내려다본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조심스럽게 들지만 올려다보고 싶기도 하다. 왜냐하면 위로는
 뾰족한 적갈색 잎사귀들을 풍성하게 늘어뜨린 채 나뭇가지들이 겹겹
 이 아치 모양을 이루며 멋지게 수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
 무들을 잘 알고 있다. 왼쪽으로는 즐거가 갈라져 있어 돌이 하나가 된
 것이고 그 갈라진 곳 내부는 길 쪽으로부터 숨겨진 어두운 구멍이다.
 아마도 올빼미의 집일 것이다.

길은 여기 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일까? 모르겠다. 나는 이 순간의

경계선 너머를 확인하고 더 많은 이미지를 본다. 좀 놀랍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나는 바라던 대로 나이 먹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행복할까 슬플까, 부자일까 아니면 가난할까, 혼자일까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을까? 그리고 내가 99살까지 산다 치더라도, 그 다음은? 높은 곳에 도달하면 슬프게 끝이 날까, 아니면 지구의 자궁 속에 또다시 누워 별빛을 타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나는 현재도 알지 못하고 아마 결코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여행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하게, 망각 속으로 잊혀져가며 끝날 수 있다. 내가 온 길을 돌아보며, 그 영국 들판을 가로지르던 걸음 너머로 서서히 이미지들이 작아지는 순간까지 뒤돌아보며, 삼촌이 나를 붙잡고 거칠게 얼러대고, 간호학교 뒤편에 정원사가 만들어놓은 나뭇잎 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커다랗고 검은 색 거미가 이슬 방울 진 거미줄 한가운데 완벽한 고요 속에 앉아 있다. 볼 수 있는 만큼 뒤돌아보다 보아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기억들 너머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험의 부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그 너머에는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뿐이다. 의문투성이였다. 나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내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일까? 나의 시작은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암재된 상태에서 연유되는 망각으로부터의 깨어남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다른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미지와 기억으로 된 이 길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들 아래 깔려 있는 것이다. 이미지와 기억으로 덧씌워지지 않은 누군가가 이 여행길에 오르고, 그 길에서 기고 걷고 달리면서 이미지와 기억을 입게 되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덧씌워졌던 것이 다시 벗겨져 나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 이 존재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경험들 사이에서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

고 당신 경험들 밑바닥에서, 이 책을 손으로 붙잡고 길을 여행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다섯 번째 길 _ 딕 허드슨 달리기 : 아는 것을 넘어

9살 때, 시골에 있는 남자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학교 뒤, 농장과 길 너머에는 나무가 없이 히스 꽃과 바위만 몇 마일씩 펼쳐진 황무지가 있었다. 날씨가 맑으면 덤불 사이로 난 길을 타고 올라가 황무지의 고원에 도달하고 나면,



양들이 다니는 좁고 구불거리는 길을 쫓아 지평선 너머 계곡과 학교의 모습이 사라지는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그 위에서 나는 단지 바람과, 무리지어 선회하는 종다리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남겨졌다.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일요일 아침에 학기 중의 벼락치기 시험공부에서 벗어나, 황무지에서 내가 갈 길을 선택해 가며, 그 광대한 하늘과 고독 속에 침잠할 수 있다는 것은.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점심식사 후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황무지 위의 짧은 자니'라고 불리는 달리기에 참가해야 했다. 황무지까지 도착해서는 그 가장자리를 1~2마일 지나 개천까지 달려 내려가 학교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짧은 자니'는 찬비가 내리면 좀 힘들긴 했지만 정말 쉬운 달리기 코스였다.

좀 더 긴 달리기는 고학년들의 몫이었다. '황무지의 긴 자니'는 짧은 버전과 거의 같은 황무지의 장소에서 시작하고 끝났지만 오르내리는 덤불 언덕을 통과하는 코스 1마일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유령의 집'

이 있다. 곧장 황무지로 올라가 로마도로의 잔해를 가로질러 양떼와 번덕스러운 기상 상태에 둘러싸여 있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사냥꾼들의 은신처 주변을 오랫동안 연속해서 도는 달리기였다.

하지만 다른 달리기가 또 있다. 거의 전설적인 코스였다. 일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었다. 이 ‘딕 허드슨’이라고 불리는 달리기는 지원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이 더 오래 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은 소년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코스는 아주 길었기 때문에 ‘유령의 집’의 초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내가 알고 있는 표지물들 너머로 가는 것이었다.

내가 열두 살, 졸업반이었을 때 선생님 한 분과 다른 4명의 소년들과 함께 ‘딕 허드슨’ 달리기를 계획했는데, 그 중 셋은 이미 그 코스를 거쳐본 상태였다.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경로를 지나 농장을 지나 학교 위쪽의 길에 있는 큰 문으로 향했다. 두 발을 번갈아가며 땅을 디뎠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달리기의 초반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다리는 무겁고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문에서, 나는 잠시 쉬고는 회색 구름으로 덮인 황무지를 향해 올려다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문을 통과해 지나갔다. 나는 문을 닫아 놓고는 다시 시작했다. 내 몸을 밀어붙여 길을 통과하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 양들이 다니는 길과 그 위의 트인 황무지까지 달려갔다.

우리가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구름이 땅 위로 내리깔려 안개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유령의 집’ 방향으로 향하면서. 달리면서 내 몸은 달리기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가슴의 통증은 사라졌다. 피로는 증발해버린 상태였다. 나는 차갑고 축축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그룹의 움직임 속

으로 흡수되어갔다.

삼십 분 뒤, 유령의 집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나는 그 빛나는 돌벽과 철 지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전에 여러 번 건물을 돌고는 학교로 돌아갔었다. 마치 그 궤도의 가장 먼 끝에 다다라서는 멀리서 태양이 이끄는 힘에 반응하는 혜성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낮은 황무지를 향했다.

나는 그룹의 뒤쪽 부분에서 달렸다. 한 소년이 내 뒤에서 무겁게 혁혁했다. 내 앞은 선생님이었다. 그 앞으로는 다른 세 소년이 있고, 바로 한두 해 전에 이미 이 달리기를 했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에너지로 가득했고, 한편으로는 전에 왔었던 길을 함께 찾아보고, 한편으로는 서로 확실한 방향을 찾기 위해 경쟁하면서 그룹의 리더들이 되어 앞서 달리고 있었다. 서서히 그들은 앞으로 멀어져 가더니 분리된 그룹으로 되어버려, 내가 가까스로 의식할 수 있는 범위의 경계쯤에서 달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연되었다. 나는 단지 내 발이 바닥을 딛는 것과 폐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서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히스와 바위들이 흘러 지나갔다. 나는 배였다. 미지를 향해 항로를 찾아 노 저어갔고, 회색 안개 베일이 하나 들어 올려지고 나면 다른 베일이 나타났다.

“더는 못 가겠어!” 갑자기 뒤에 있는 소년이 소리쳤다. 나는 놀라서 멈추고 돌아봤다. 그는 길 위에 멈춰서 있었고 얼굴과 팔, 다리가 빨개져 있었다.

“괜찮아, 팀.” 선생님이 말했다. 그도 멈추고 나를 지나쳐 소년 앞으로 갔다. “혼자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겠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

이제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켜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보세요.
그것이 얼굴을 가리키고 있나요?

였다. 선생님은 안개 속을 둘러보다가 소년에게 고개를 돌렸다. “알았다. 학교에서 보자꾸나.” 나는 잠시 동안 소년이 걸어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곧 그는 가버렸다. 선생님과 나는 몸을 돌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달리기는 이제 달라져버렸다. 팀과 잠시 있는 동안 다른 소년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앞에는 두터워져 가는 안개와 좌우로 갈라져 회색 빛 속에 흐려져가는 양들의 발자취뿐이었다. 나는 다른 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어딘가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 모습들은 안개 속에 용해되어 사라졌다. 그들은 가버렸다.

선생님은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잡기 위해 용을 쓰며, 땅을 더 짙 붙잡아 뒤로 더 빨리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더 힘을 낼 재간이 없었다. 선생님은 역시 곧 내 앞쪽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는 멈추고는 돌아봤다. “난 다른 셋을 따라잡아야겠다.” 그는 급하게 말했다. “학교로 돌아가거라, 알았지?”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잠시 거기에 서 있었다. 안개와 빈 황무지가 앞에 보였다. 히스와 바위들이 공허 속으로 사라져 가는 음침한 광경이었다. 나는 혼자였고, 지쳤으며 내가 모르는 곳에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몇 분 뒤 길은 갈라졌다. 발자취 하나는 아무렇게나 왼쪽으로 꺾여 있었고, 다른 하나

는 오른쪽으로 꺾여있었다. 이상해서 나는 발을 멈췄다. 이렇게 꺾인 길을 본 적이 없다. 두 개의 길은 똑같이 보였다. 주변을 둘러봤다. 무서웠다. 기숙사 어둠 속에서 들은 얘기들이 떠올랐다,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늪,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멍들, 친구들을 찾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나는 가슴 졸이며 침대 속에서 이야기를 듣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바람에 셔츠가 펄럭였다. 걱정이 심장으로 스며들고, 목과 눈까지 북받쳐 올라왔다....

나는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비가 오솔길과 황폐해진 울타리, 교회와 울타리 너머 아파트 건물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건물들 사이로 게레로 가街를 따라 차들이 훅훅 오가는 광경을 보고 있다. 나는 의기소침했다. 서른 살인데 아무 경력도 없다. 일주일에 두 번, 최고의 학위를 가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러 집들로 향한다. 일주일에 세 번, 나는 똑같이 정원관리 회사를 위해 돌을 나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러 간다. 하지만 오늘 비가 와서 정원관리가 취소되었다. 나는 읽고, 꿈꾸고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는 일에 지쳐 버렸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전화하는 것이 두렵고, 폴리에스테르 유니폼을 입는 것이 두렵고, 인터뷰하는 시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 두렵다.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게레로 가는 그늘진 낯선 강으로 변해간다.

나는 길의 하나를 골라잡고는 달리기 시작했었다. 길이 갈라지면, 다시 하나를 골라잡고 안개 속을 또 달렸다. 어떤 것도 익숙한 것이 없었다. 발자취는 복잡한 거미줄 망이고 나는 좌절한 파리였다. 나는 덤불과 바위와 길들을 가로질러 달렸다. 두려워하며 마치 2등급 마법사마냥 안개 속에서 학교의 불빛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웠다. 하지만 내가 좌우 앞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황무지와 안개가 전부였다.

나는 계속 달려서 황무지의 평평한 면이 끝나는 곳에 다다랐다. 내 리막길이 나오고 덤불을 지나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개천에 다다랐다. 이곳은 항상 이런 상태였던 것처럼 안개가 걷혀있었고, 개천 너머로 폭이 넓고 자갈과 흙으로 이루어진 길이 나타났다. 개천을 건너 길 위에 서서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았다. 내가 와본 곳이거나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길을 찾은 것이다. 이제 친구처럼 내게 손을 뻗고는 다른 손으로 저 아래 알 법한 길을 가리키고 있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길 너머 들판을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는 오래된 농장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밭 근처에 있는 어떤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자갈 위에 있는, 구슬만한 나무인형의 머리였다.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아 들어보았다. 빨간 얼굴 속에 있는 두 개의 검은 점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둥글게 구부러진 선이 나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마치 부적인 양 그 머리를 단단히 손으로 쥐고는 길로 향해 뛰어 내려갔다.



여섯 번째 길 _ 신비와 역설, 우리 모두의 길

당신의 길도 내 길과 같아야 한다면, 또는 내가 서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한다면(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건방지고 바보 같

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나? 당신이 일클리 황무지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나? 당신이 우리 삼촌 품에서 정신없이 즐거워하며 빙글빙글 돌려진 적이 있었나? 당신이 캘리포니아의 산 속에 있는 호숫가 위로 솟아오르는 보름달의 모습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가?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반문한다. “당신은 우리가 함께 여행할 세 번째 길이 있을 거라고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아무것도요.” 다른 목소리가 답한다. “하지만 길들에 대해선 잊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여행해 봐야 결국은 방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봐요, 두 사람,” 세 번째 목소리가 끼어든다. “길은 있어요. 하지만 또 길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길이고 나의 길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의 길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당신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첫 시작점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이고 역설이지요. 그것을 짐작해보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음, 좋다. 이 각자의 입장마다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는 좀 복잡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세 번째 길이란 것이 정말로 단순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실제적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누가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길인지, 또는 그것이 정말 세 번째 길인지, 또는 그것이 ‘바로 그 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다 그냥 좀 바보 같은 소리 같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집 근처 들판을 가로지르는 그 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것은 확실하다. 한 마디로, 그것은 같은 종류의 길이다. 하지

만 이제 그만 말하겠다. 그것을 당신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마치 내 친구 더글러스가 28년 전 보여준 것처럼.

일곱 번째 길 _ 투명한 '있음'

우리 여덟 명은 참나무 판자로 된 작은 방에 둥글게 모여 있다. 방 한쪽 끝으로는, 이 런던 교외의 크고 오래된 시골집에 딱 어울릴 만한, 납 테두리를 두른 창문들로 이루어진 좁고 높은 유리창들이 보인다. 창 너머로는 푸른 하늘과 떠다니는 흰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뭇잎들이 가득 달려 어두워 보이는 나무들이 보인다. 산비둘기 하나가 플루트처럼 노래하자 열린 창문을 통과해 잔잔히 들려온다.



워크숍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당신이 몸을 돌려 반대편에 보이는 화자를 보면, 흰 머리와 짧게 자른 흰 수염의 60살 먹은 남자, 말하자면 더글러스 하딩이 보인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에겐 머리가 없다고? 나는 당신과 눈빛을 교환한다. 대체 뭘 하려는 곳이지?

“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딩은 말한다. “제가 그것에 대해 입술이 부르토도록 말하고 또 말해봤자, 또 당신이 그것을 알거나 말거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편안히 이완된 동시에 생기가 있어 보였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제가 어떤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하딩의 오른쪽에, 안경을 쓴 중년 여자가 크게 미소 짓고 있다. 그녀 옆으로는 20대 후반 정도의(17살에게는 20대 후반은 거의 중년처럼 보인다) 젊고 왜소한 남자가 무릎을 모으고 하딩 반대쪽으로 어깨를 기울인 자세로 앉아있다. 하딩의 다른 옆쪽으로는 거의 대머리에, 코와 턱이 약간 구부러진 중년 남자가 있다. 그 남자도 미소 짓고 있다. 그 남자 옆에 있는 여자는 그 남자의 부인 같았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부드럽고 깊은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집게손가락을 들어보세요.” 하딩이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천장을 향해 가리키세요.” 그는 그의 손가락을 힘있게 쳐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른 여덟 명도 천장을 가리켰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바다 조류 위에 흔들리는 바다 말미잘처럼 보였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아 주시겠어요?” 하딩이 말한다. “금이 가 있는 흰색 회반죽 천장이 보이지요. 이번에는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을요. 잘 보세요, 천장도 손가락도 모두 어떤 것들이죠? 말하자면, 둘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둘 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호대칭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지요.”

오케이.

“이제 천장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내려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 아무나 가리켜 보세요. 그 사람의 머리를 가리켜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어깨 위에 놓인 털 달린 8인치짜리 미트볼인가요? 그 손가락과 미트볼의 관계는 좀 전에 손가락과 천장의 상황처럼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의 손가락 끝이 미소 짓고 있는 여자의 머리 쪽에 맞춰져 있었다. 아니 미트볼인가?

“이제 손가락을 다시 내려서 당신의 발을 가리켜 보세요. 역시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나는 당신을 바라본다. 당신은 즐겁게 눈을 굴린다.


“손가락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당신 배를 가리켜 보세요. 손가락으로 배를?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켜 보세요. 손가락이 가슴을 가리키고 있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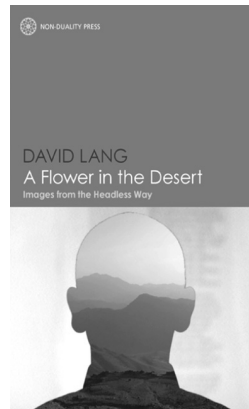
그렇다.

“이제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켜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보세요. 그것이 얼굴을 가리키고 있나요? 어떤 것인가 당신 손가락이, 색이 있고, 테두리가 있고, 질감이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가리켜서 상호대칭적인 관계에 있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얼굴이 아닌 것, 어떤 것이 아닌 것, 공중, 유리처럼 깨끗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투명함인가요?”

나는 이 투명함을 바라본다. 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 맑다. 유리처럼, 물처럼, 빛처럼. 얼마나 이것을 그리워했던가? 여기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내가 공기와 무無로 이루어져 있다니. (끝) 

- 이 글은 『A Flower in the Deser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데이비드 랭(David Lang) | 40년 넘게 Headless Way를 수련하고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Flower in the Desert : Images from the Headless way』(Non-Duality Press, 2012)와 『Is a Text a Human Being? A Non-dual Approach to Composition and



Reading Theory』가 있고 편집한 책으로는 더글러스 하딩의 『Face to No-Face: Rediscovering Our Original Nature』(InnerDirections Publishing)이 있다.

저자 | 유래현 | <지금여기>번역위원. 서울대학교 작곡가 졸업 후 현재는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고 등사범음악원ENMP에서 영화음악, 오케스트레이션, 작곡을 공부하고 있다.